

Vol. 20 No. 962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June 21 2024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세탁소로 대변되는 MA 한인사업체 "아주 어렵다"

1세대 중심 한인사업체 3% 성장, "줄지 않은 게 다행" 인플레이션 한인 및 아시안 사업체에 가장 큰 타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아시안 사업체들이 팬데믹 이후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흑인 등 다른 소수 민족들과는 달리 체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인 사업체들은 약 20년동안 단 3%만 증가하는 등 이민 1세대 사업 운영 모델에 한계를 겪고 있다.

보스톤재단(The Boston Foundation) 산하 아시안사업체진흥위원회(ABEC)가 매사추세츠 아시안 비즈니스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안 사업체들은 팬데믹 이후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보고서는 처음이다.

아시안 업체들은 81%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각종 비용상승의 압박을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대출 등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77%)도 또 한가지 요인이었다. 인건비 상승(71%)과 좋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66%)도 그 뒤를 따랐다.

아시안사업체들은 2000년 이후 급속도로 늘었다. 2002년에서 2017년까지 매사추세츠 전체 사업체가 23%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아시안 소유의 사업체는 156% 증가했다. 미국전체적으로 아시안 소유의 사업체가 같은 기간에 128% 증가한 것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 같은 아시안 사업체 ▶▶7면으로 계속



매사추세츠 한인 사업체는 세탁업소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세탁업, 식당업, 네일업 등 한인 사업체들이 종사하는 업체들은 팬데믹 이후 높은 물가와 임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챗GPT가 그린 한인 세탁업소)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특별한 보상. 전문적인 권유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아웃사이드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권유

* 조지아 어블린턴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평통골프대회 참가자 모두가 상받아, 푸짐한 상품

베스트볼 방식으로 진행, 이경환, 고영복 조 1 오버타로 우승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지역 협의회(회장 한문수)가 15일 개최한 강일한 미주부의장배 골프대회에서 이경환/고영복조 7타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김재휘 총영사, 홍순복 부총영사를 비롯한 50여명이 참가한 이번 골프대회는 “초보자도 부담없이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갖자” 는 취지로 로드아일랜드 크랜스톤 골프코스에서 개최됐으며 2인 1조 스코램블(베스트볼)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됐다.

2위는 스펜서남/박가원(+2)조가, 3위는 장명술/정현석(+4)조가 차지했다. 근접상은 백호중, 고영복씨 그리고 장타상은 박가원씨가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흥진섭 평통고문이 준비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진행했으며 평통은 쌀, 라면, 1회용 장갑 등 다양한 상품을 준비해 모든 참가자에게 상품이 돌아가도록 배려했다.

흥 준비위원장은 “멀리서 로드아일랜드까지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 즐거운 시간을 함께 즐기고 네트워킹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번 골프대회를 준비했다” 고 말했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경환씨는 “이제껏 참석했던 한인 골프대회 중 최고였다. 좋은 골프장에다 준비도 철저해, 재밌게 골프를 칠 수 있어서 좋았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등록비도 저렴한데 참가자 모두에게 푸짐한 상을 준비해 평통이 보스톤 한인 사회의 진정한 리더임을 보여준 행사였다. 내년엔 참석뿐 아니라 후원도 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다수의 참가자들이 이번 대회를 호평했으며 내년 골프대회에도 참가하겠다는 반응이었다.

bostonkorean@hotmail.com



6월 19일, 보스톤 101년만에 최고 온도 기록 돌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보스톤이 사상 최고 온도 기록을 깼다. 6월 19일 폭염 둘째날을 맞은 보스톤은 약 1시간만에 무려 4도나 온도가 상승해 98도를 기록하며 1923년 6월 19일 96도였던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또한 미기상청에 따르면 19일은 2022년 8월 9일 이후 가장 더운 날이었다. 체감온도는 107도에 달했다. 이번 최고 온도는 로건공항에 위치한 측정소에서 오후 4시에 측정된 것이다.

19일 온도는 밤사이 70도 대로 낮아지지만 20일 아침 바로 80 후반대에서 시작하게 된다.

폭염이 시작된 18일 로건공항에 기록된 최고 온도는 92도였다. 이번 더위는 21일을 기점으로 주말부터 조금 선선해지며 꺾일 것으로 예보됐다.



6월 15일 로드아일랜드 크랜스톤 골프코스에서 개최된 평통 골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이경환/고영복 조. (사진 좌로부터 한문수 회장, 이경환, 고영복씨, 흥진섭 준비위원장)

서울설렁탕
SPECIAL COLD NOODLES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kyu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유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유람건강검진
시설 정비, 컴퓨터 검진방독,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유'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인 상담·예약·검진신청·비용안내를 보지 마세요! 도와드립니다!

유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종합검진 기본 항목

1. 이학적검사(신체계측, 체중, 시력, 안압, 혈압)
2. 흉격검사(순환기계검사)
3. 혈액검사(총콜레스테롤 검사 70여가지)
4. 암표지자검사
5. 심폐기능검사(호흡기-RAY, EKG, 노폐물배출량)
6. 오진사
7. 목지방검사
8. 분과과검사(자궁경부암, 유방독수촬영)
9. 소화기검사(수면 유동시경)
10. 핵무추진(영상)간장, 위장, 췌장(가별)
11. 분진 및 건조의 상담

유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오후 4시간 / 45만원
-가만말에 - [남] 동맥경화, 신장기능, 골밀도, 혈액화학
-내원후 - [내] 심장초음파, 수혈검사, 유방초음파, 골밀도, 약전DO+

유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휴면 / 65만원
-의문 당일종합검진 + 수면 검사 + 약전(120)

유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휴면 / 120만원
-내원 숙박종합검진 + MRI, OCT

유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휴면 / 240만원
-내원 정밀종합검진 + MRI, 유방초음파, 유동시경, 분과(가별) 15분간영상, 영문영상, 핵분진(비밀적격 가능)

유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2일간 24시간 전 검사 시험 / 437만원
-내원 VVIP종합검진 + PET-CT(전신정량영상), 핵분진, 유동시경, 분과(가별) 15분간영상, 영문영상, 핵분진(비밀적격 가능)

유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심혈관 병과, 장애인 정보통신 의료서비스
중앙대학교병원(홍익역) H+영지병원(신림역)
서울무민병원(가양역) 세강병원(북촌역)
연신암도병원(삼부역)

617.949.1766
주소: 216-3499-4040(D: Inurankor)
이메일: huzim@inurankor.com
홈페이지: www.inurankor.com

Lunar New Year - Massachusetts State Holiday



Started June 16, 2024
Petition to Massachusetts State Senate and 1 other

128 Signatures 200 Next Goal

118 people signed this week

Sign this petition

First name:

Last name:

Email:

Why this petition matters

설날을 매사추세츠 주 공휴일 지정, 청원운동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회장 린다 챔피언)가 설날을 매사추세츠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청원을 전개하고 있다.

체인지닷오알지(Change.org)에 올라 있는 이 청원은 당초 25명을 목표로 했으나 126명이 현재 서명하고 있다. 이중 118개의 서명이 이번 주에 달성됨에 따라 서명 목표를 200으로 상향했다.

시민협회 린다 챔피언 회장은 “설날(Lunar New Year)은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며 행운, 번영,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날이다. 가족과 커뮤니티가 함께 지키는 이 명절은 아시아인들의 어려움과 고난의 극복의 이야기가 담긴 미국의 한 부분이다. 수백만 아시아인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은 반드시 공휴일로 인지되어야 한다” 고 서명 운동을 하는 이유를 적었다.

린다 챔피언 회장은 이 청원운동에서 아시아인이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커뮤니티지만 인구에 비해 주 의회 진출한 의원 수는 턱없이 적고 각 타운과 시정부 공무원에도 아주 적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설날의 공휴일 지정은 아시

안들이 미국사회에 중요한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챔피언 회장은 강조했다.

청원 주소 : https://www.change.org/p/lunar-new-year-massachusetts-state-holiday?recruited_by_id=&a8986c0-2c96-11ef-a004-7fc1e5a7f670&utm_source=share_petition&utm_campaign=psf_combo_share_initial&utm_term=psf&utm_medium=email

bostonkorean@hotmail.com



2024년 세일즈텍스 할러데이 8월 10, 11일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주 상하원은 13일 올해 세일즈텍스 할러데이를 8월 10일과 11일로 확정했다.

세일즈텍스 할러데이는 매사추세츠 주내서 구입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6.25% 세일즈텍스 면제하는 날이며 주법에 따라 매년 8월 중 한 주말 2일동안 진행된다. 주의회는 매년 이를 결정한다.

세일즈 텍스 면제는 \$2,500 달러 이하의 상품 구입에만 적용된다. 이는 각 개별 상품에 적용되는 한도이며 전체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레스토랑 식대, 주류, 담배, 마리화나 그리고 전화 플랜, 자동차 및 보트 등 구입은 제외된다.

매사추세츠 주는 \$175 이하의 의류에 대해서는 세일즈 텍스를

부과하지 않지만 그 이상의 고가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웨딩드레스 또는 평상시 구입하려던 고가의 제품은 이 시기를 이용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세일즈텍스는 차량이나 보트가 아닌 경우, 각종 물품의 렌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주세청에 따르면 30일 렌탈(rental)까지 할러데이 주간엔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 면제된다.

특히, 온라인 상품도 12일 양일간은 세일즈텍스를 감면받게 된다. 만약 세일즈텍스 할러데이 기간에 구입했는데 우연히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추후 이 세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보스톤 단독주택 한 채에 1백만달러 시대에 근접

2024년 그레이터 보스톤 매달 집값 최고 경신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자고나면 달라져 있는 것이 최근 그레이터 보스톤지역의 집값이다.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중개인연합(GBAR)의 집계에 따르면 5월 그레이터보스톤지역 단독주택 중간값은 \$950,500로 주택 1백만달러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나타냈다.

주택가격은 전월인 4월 대비 0.1% 상승에 그쳐 과도한 상승세를 보이는 않았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5.6% 상승하면서 역대 5월 사상 최고

가를 기록했다. 콘도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2% 하락한 \$715,000이었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러드 윌크 GBAR 회장은 “가격인하 조짐은 거의 없다. 수년동안 오피 입찰에서 밀려 집을 구매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주택 구매에 적령기에 달한 많은 밀레니얼 세대들의 강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며 주택 가격 상승의 이유를 분석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집값이 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점차 주택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고 매미가 증가되면 집값 상승은 완화되거나 멈추는 게 전형적이다.

윌크 회장은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매물은 더 부족하며, 이로 인해 단독주택의 가격은 올 봄 급격히 인상됐다” 고 설명했다.

단독주택 매매는 총 1,014채가 거래되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증가했으나 콘도미니엄의 경우 지난해 보다 적은 920채가 거래됐다.

이 같은 거래량의 증가는 마침내 매매가 다시 활성화되는 서막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이자율이 상승된 이후 매매량은 꺾여 붙었다. 당시 집 소유주들은 높은 모기지 금리를 고려해 집을 팔고 다시 사려는 시도를 단념했기에 가격이 상승해도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았었다.

프레디 맥(Freddie Mac)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가 6.95%로 지난 2022년 이전에 비해서도 여전히 높은 상태다. 그러나 금리 인하를 기다리던 구매자들은 점차 기다림을 포기하고 향후 금리 인하시 리파이낸싱을 계산에 넣어 구매에 나서기 시작했다.

여전히 그동안 집값 상승의 요인이 그대로인 상태가 지속되면서 주택 전체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워렌그룹에 따르면 5월 주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7.9% 인상된 \$636,000이었다. 이는 올해 들어 9.3% 인상된 것이다.

워렌 그룹의 캐시 노트 언론담당 부디렉터는 매매가 많아지면 가격이 낮아지기 마련인데 막대한 수요의 증가는 시장의 일반적인 행태를 바꾸어 놓았다고 평가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숙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매사추세츠 중간소득으로 주내서 내집마련 불가능

부부가 맞벌이 해야 매사추세츠 중서부 지역서 구입 가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어메리칸 드림 성취의 바로미터로 여겼던 내집마련이 10년 전에 비해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NBC 뉴스가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주택공급부족, 높은 모기지 금리, 그리고 역대 최고의 집값 등으로 인해 주택 어포터빌리티갭(afford-

ability gap)은 10년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어포터빌리티갭은 지역의 중간가구소득에서 중간 주택가격에 지불하는 상환금을 차감한 수치다.

주택은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기준 세전 가구 총소득의 30%를 넘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구입 가능(Affordable)한 것으로 간주된다.

NBC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의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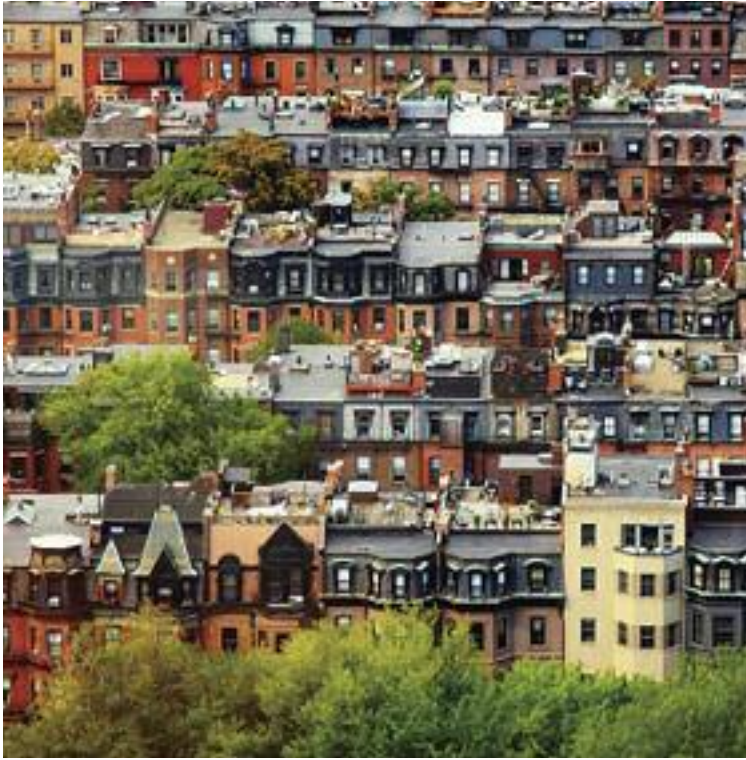
포터빌리티의 차이는 지역별로 편차가 광범위했다. 매사추세츠의 중간 연봉은 \$60,690으로 미국내 주 중에서 가장 높았지만 주내 주택의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미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했을 경우 2801개 카운티 중 1,618개의 카운티에서 주택이 구입 가능했다.

가장 낮은 중간 연봉을 기록한 주는 미시시피로 \$37,500로 미국내 2801 카운티 중 531개 카운티에서만 집 구입이 가능했다.

맞벌이인 경우 주택구입이 훨씬 용이했다. 매사추세츠 중간소득 맞벌이 가정의 경우 세전 소득이 \$121,380로 주내의 버크셔, 프랭클린, 햄프셔, 햄든, 우스터 그리고 브리스톨 카운티에서 주택구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그레이터 보스톤 지역인 미들섹스, 에섹스, 서퓍, 플리머스, 노퍽, 듀크스, 낸터킷 그리고 반스터블 카운티에서는 주택 구입이 불가능했다.

현재 매사추세츠 중간소득을 올리는 가구는 미국내 60% 카운티에서 집 구입이 가능하지만 이는 5년전 90%카운티에서 집구입이 가능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다.

hsb@bostonkorea.com



2023년도 선발 초청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2024년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신규 선발

매월 생활비, 최소소요경비, 항공료, 보험료, 교류 활동 등 지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해외 21개국에서 100명(학사 30명, 석·박사 70명)의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을 선발했다.

센터는 동포사회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97년도부터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분야별 전문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석·박사 선발인원을 확대하였으며,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맞이하는 러시아·CIS지역의 고려인 동포 학생

에 대한 선발 비중도 늘렸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생활비(월 95만원), 입·귀국 항공료, 최소소요경비, 보험료 등이 지급되며, 지역별 간담회, 선후배 멘토링, 봉사활동, 역사·문화·발전상 체험 등 다양한 교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된다.

김영근 센터장은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은 현지 거주국과 동포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에도 기여하고, 한국-거주국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할 우수 인재로, 앞으로 인구 절벽시대를 극복할 해법이 될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LET'S GET REAL ABOUT GAMBLING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논란의 중간에 선 하버드, 한 학장 "교수들 발언시 처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 하버드 교수가 논란을 일으키는 교수들의 발언에 재갈을 물리자는 제안을 하자 친 팔레스타인, 친 이스라엘 교수들이 모두 공동으로 이를 성토했고 나섰다.

지난주 사회과학대학 학장 로렌스 보보 교수는 하버드 신문 크립슨에 기고를 통해 과도하게 대학을 비난하는 교수들에게 징계를 내리자고 제안했다.

보보 교수는 “교수들의 발언에 한계를 두자”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교수의 발언으로 결코 외부의 관계자 즉 미디어, 동문, 기부자, 연방기관 또는 정부 등으로 하여금 하버드 내부 일에 개입하게 만드는 무한대의 자유는 아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공개적인 발언으로 초래되는 각종 논란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보보 교수는 주장했다. 이에 보보 교수의 비판의 대상이 된 교수들은 즉각 반발했다.

로렌스 서머스 전 하버드 총장은 “하버드 학과장이 학교 일에 발언한 교수들의 징계를 요구한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분명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친 팔레스타인 운동의 일부 요소에 대해 강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버드의 친팔레스타인 그룹의 자문위원인 월터 존슨 하버드 역사학과 교수는 “그의 기고문은 대학이 교수의 표현과 학교의 운영에 관한 의문에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일련의 행동 중의 하나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보보 교수에 대한 비난이 점차 거세지면 서 대학은 보보 교수의 입장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보보 교수는 학교 대변인에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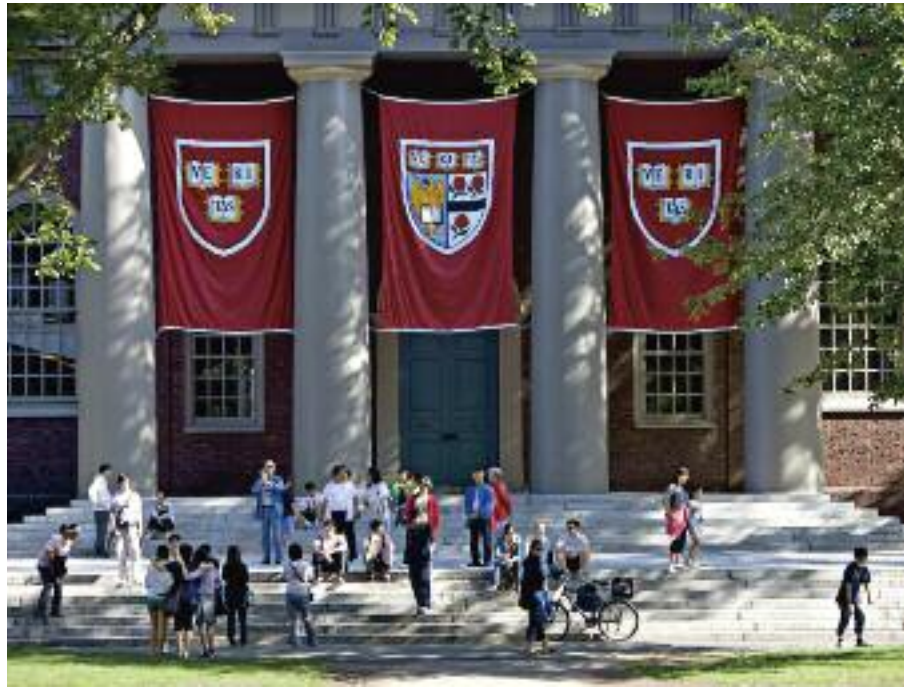
크립슨에 기고문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하버드 커뮤니티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개인적 의견임을 강조했다. 학교 측도 개인적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하버드는 반대에 대한 억압없이 자유롭게 의문점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학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관한 논의가 가열차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당국과 교수진들과의 불만도 최고조로 높아져있다.

하버드는 그동안 논란에 휩싸여 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시위, 반유대주의 반이슬람 논란 그리고 총장을 날린 표절 시비 등 언론들은 하버드의 논란을 계속 주요 소재로 삼아 소비했다. 또한 연방 정부는 조사에 나섰고 보수 활동가들은 다양성, 평등, 포용 정책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보보 교수는 하버드의 논란에 대한 책임을 특히 서머스 교수에게 집중시켰다. 서머스 교수는 하버드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태도를 비판했었다. 보보 교수는 “전 하버드 총장을 비롯해 유명 하버드 관계자들이 놀랄 정도로 거칠게 공개적으로 하버드 학생들과 지도부를 비난했다”고 적었다.

서머스 교수는 10월 7일 하마스의 잔인한 공격에 따른 이스라엘의 보복전쟁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책임이 있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하버드 지도부가 즉각적으로 이 같은 주장과 거리를 두지 못했던 것을 비난했었다. 그는 이 같은 학교의 태도를 반유대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비난했으며 결국 의회가 이를 조사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서머스 총장은 추후 의회 청문회의 발언으로 인해 커다란 역풍을 맞았을 때엔 클로딩 게이 총장을 지지하는 편지에 서명했



다.

보보 교수는 친 팔레스타인 시위 학생들을 지지하는 교수들도 비난했다. 지난 4월 하버드 야드에서 천막시위를 벌였을 때 일부 교수들은 이 천막을 방문해 이들을 지지했었다. 일부 교수들은 학생들의 천막 시위에 대한 징계를 당했을 때 자문위원으로 일하기도 했었다.

일부 교수들은 학교 행정직을 맡은 교수가 공개적으로 교수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경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버드 사회과학부 한 교수는 “학교 당국을 비난하는 교수를 징계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며 대학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교수는 “학교 교수들의 연봉을 결정하는 학장이다. 특히 학장을 비판하는 교수들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 때 더욱 전체주의적 사고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12월 보보 교수는 하버드 총장에게 “대학의 독립성을 방어하고 하버드의 학문적 자유를 억누르는 정치적 압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공개 편지에 서명했었다. 보보 교수의 기고문은 발언을 자제하지는 취지에서 쓰였지만 처벌을 내세운 것은 잘못된 해결 방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역사학 교수이자 팔레스타인 연대위원회의 전 자문위원인 존슨 교수는 보보 교수의 기고문이 “좋은 의도”로 쓰였지만 잘못된 사고를 표현한 글이라고 지적했다.

하버드의 논란은 학문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가진 캠퍼스에서 펼쳐지는 자유로운 논쟁일 수 있지만 복잡한 세계의 전쟁과 정치 속에서 엉클어진 현대인들의 머리 속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중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세탁소로 대변되는 MA 한인사업체 "아주 어렵다"

▶▶1면에 이어서

의 증가가 모든 아시아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캄보디아계 사업체는 141% 증가해 선두였다. 인도계 124%, 중국계, 99%, 대만계 41% 등이 아시아인 소유 사업체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반면, 한인 사업체는 같은 기간에 단지 3% 증가에 그쳤으며 일본 사업체의 증가율(15%)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점은 한인사회가 반드시 주목하고 문제점과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사회 사업체는 세탁업에 집중해 있음이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MA 전체 세탁 업체 중 47%를 아시아계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한인들 소유이고 일부는 베트남계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계는 대부분 식당업, 베트남계는 대부분 네일업계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번 보고서는 비록 아시아인 사업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처음으로 매사추세츠 아시아인 사업체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보고서는 지난 1년간의 업계 환경, 겪는 어려움 그리고 (대출 및 정부 및 단체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전체적인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캠지안 시 ABEC 디렉터는 “이번 연구에서 들여다 본 것은 많은 아시아인 인구에 대한 많은 자료 중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데이터는 우리가 현장에서 들었던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현재의 아시아인 사업

체의 환경을 조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보스톤 재단의 아시아인 커뮤니티 펀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재단은 지난해 총 221개의 조사에 대한 응답을 받았으며 올해 초 9번의 포커스그룹 면담을 진행했다. 이 조사에는 총 20여 아시아계가 참여했고, 이 중 대부분은 캄보디아, 중국계, 인도계, 한국계 그리고 베트남계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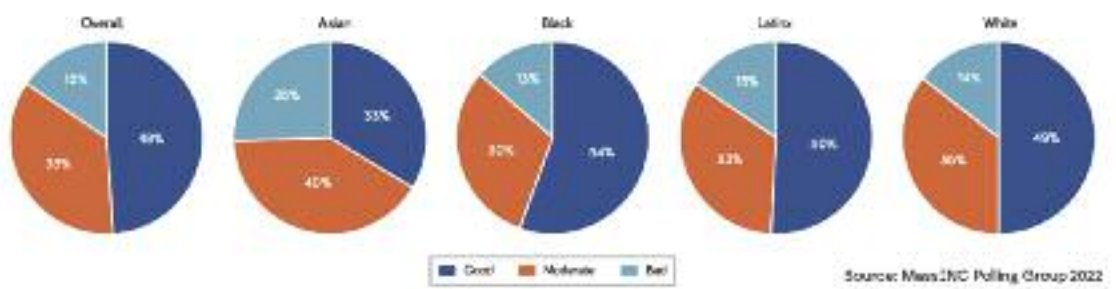
경기에 대해서는 식당, 네일살롱, 세탁업계 종사자들은 40% 이상이나 썩거나 아주 나쁜 것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헬스케어나 의료계 등의 업체는 40% “좋거나 아주 좋다”고 표현해 업종별로 희비가 갈렸다.

흥미롭게도 모국어가 영어보다 편한 이민자들이라고 밝힌 사업주일수록 현재의 사업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이 사업기회에서도 큰 제한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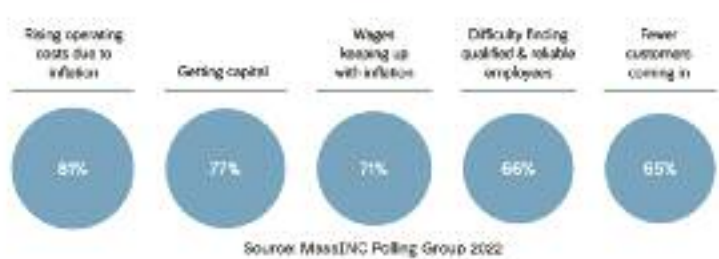
미국사회에 더 가까이 들어갈수록 사업기회는 더 많다는 점이 조사로 드러난 것이다. 미국사회의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수민족사업자 인증(MBE, SDO 인증, SBA 8(a) 등)을 획득해 정부조달 사업에 뛰어들면 박찬모씨는 좋은 한 예이다.

이경석(Matthew Lee) 코비 미국 정부조달협회장도 한인들에게 “(조달사업에서) 1세대가 성공한 경우도 많지만 언어장애(영어)가 없고 인맥과 실력을 갖춘 1.5세 또는 2세들의 성공율이 높다. 1세대가 SBA 8(a) 인증 프로그램으로 기반을 갖추고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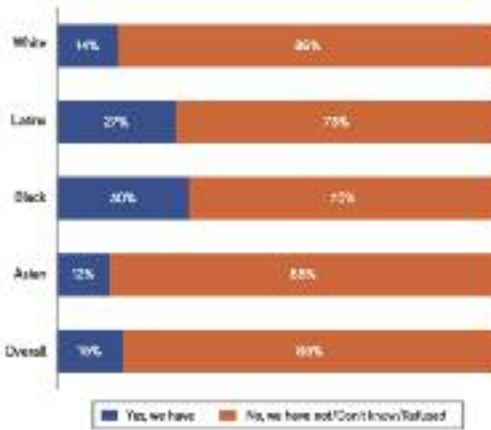
Share of Massachusetts small business owners who say business conditions are good, bad, or moderate by race or ethnicity.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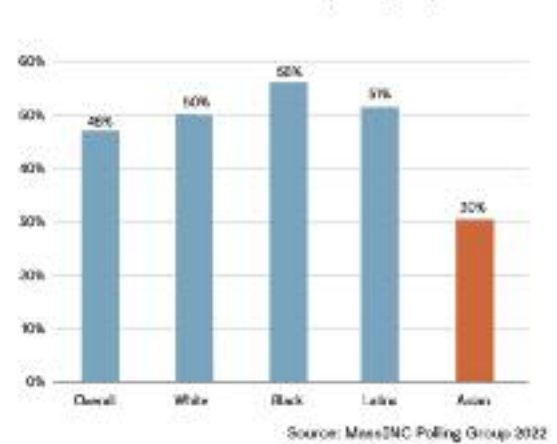
Share of Asian small business owners who list a given challenge as a major concern. Massachusetts, 2022.



Has your company received assistance, coaching, or advice in the last 12 months?



Asian-owned businesses are less likely to work with anchor institutions than any other group.¹



들에게 미연방정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매우 성공적으로 미연방정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회장이 운영하는 씨테크시스템즈(Sea Technology Systems)는 며칠전 국토부에서 2억3천3백만달러 계약을 수주했다.

한편, ABEC는 아시아인 사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 아시아인 언어로 된 테크니컬 도움, 아시아인 업체들을 위한 체계적인 금융 대출 및 지원, 아시아인 사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리소스 센터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실제적인 도움까지는 아직 요원하다. 그럼에도 최소한 아시아인 사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변화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보스턴, 16년 만에 NBA 정상·역대 최다 18회 우승...MVP 브라운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보스턴 셀틱스가 16년 만에 미국프로농구(NBA) 왕좌에 올랐다.

보스턴은 18일(한국시간) 미국 보스턴의 TD가든에서 열린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2023-2024 NBA 챔피언결정전(7전 4승제) 5차전 홈경기에서 106-88로 이겼다.

1~3차전을 연이어 잡은 뒤 4차전을 내줬던 보스턴은 안방에서 반등에 성공하며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이번 시즌 NBA 챔피언에 등극했다.

2007-2008시즌 이후 16년 만에 트로피를 추가한 보스턴은 통산 우승을 18회로 늘리며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17회)를 제치고 NBA 역대 최다 우승 단독 1위가 됐다.

보스턴은 2008년 우승이 확정된 챔피언결정전 6차전이 열린 지 정확히 16년이 흐른 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추가했다.

보스턴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유일하게 60승을 넘기며 동부 콘퍼런스 1위(64승 18패)에 올랐고, 플레이오프에서 마이애미 히트(4승 1패),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4승 1패), 인디애나 페이서스(4승)를 차례로 제압한 뒤 댈러스까지 꺾었다.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에서 5위(50승 32패)를 하고도 챔피언결정전까지 올라왔던 댈러스는 2010-2011 시즌에 이어 두 번째 우승의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했다.

챔피언 최우수선수(MVP)는 보스턴의 제일런 브라운에게 돌아갔다.

브라운은 이날 5차전에서 21점 8



우승 자축하는 보스턴 선수단

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올리는 등 챔피언 5경기 평균 20.8점, 5.4리바운드, 5.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우승에 앞장섰다.

보스턴이 1쿼터 막판 19-18에서 연속 9점을 뽑아내며 28-18로 앞서 기선을 제압했다.

이후 두 자릿수 격차가 이어지다가 2쿼터 댈러스의 속도가 살아나며 추격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했으나 숏 난조가 이어지면서 틈을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

안정적으로 리드를 지켜 나가던 보스턴은 2쿼터 종료 13초 전 제이슨 테이텀의 외곽포가 꽂히면서 20점차(64-44)로 달아났다.

2쿼터 4초를 남기고 루카 돈치치가 추가 자유투를 놓치며 3점 플레이를 완성하지 못한 뒤 보스턴의 전반 마지막 공격에서 페이턴 프리처드가 하프라인 뒤에서 날린 버저비터 3점포가 들어가며 67-46으로 벌려 승부의 추가 패 기울었다.

2쿼터에만 39점을 몰아친 보스턴의 기세가 후반 들어서서는 다소 잠잠했으나 댈러스는 고비에서 에이스 돈치치부터 조금씩 모습을 보이며

이렇다 할 반격을 하지 못했다.

공격 리바운드 등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은 보스턴은 3쿼터가 끝났을 땐 86-67로 앞섰다.

4쿼터 들어 돈치치의 외곽포가 터지기 시작했지만, 댈러스가 이미 크게 넘어간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테이텀의 연속 4득점으로 4쿼터 4분 39초를 남기고 보스턴이 102-78로 도망가자 TD가든은 사실상 우승 축하 분위기로 접어들었다.

테이텀이 31점 11어시스트 8리바운드로 활약하며 브라운과 함께 '원투펀치' 임무를 완수했고, 즈루 홀리데이가 15점 11리바운드, 데릭 화이트가 3점 4개 등 14점 8리바운드를 기록했다.

부상으로 2차전 이후 나서지 못했던 보스턴의 크리스탑스 포르진기스는 이날 복귀해 16분을 소화하며 5점 1리바운드를 보냈다.

댈러스에선 돈치치가 28점 12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분투했고, 카일리 어빙이 15점 9어시스트, 조시 그린이 14점을 올렸다.

songa@yna.co.kr



보스턴 셀틱스 우승 축하 퍼레이드 금요일 오전 11시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턴 셀틱스의 18번째 미국 NBA 정상을 축하하는 퍼레이드가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 TD가든에서 시작된다.

미셸 우 보스턴시장은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승 축하 덕보트 퍼레이드의 노선을 밝혔다. 이는 TD가든 밖에서부터 보스턴 코츠웨이 스트리트로 향하며, 보스턴 시청을 지나 트레몬트 스트리트로 진입해 보스턴 커먼을 지나간 후 보일스턴 스트리트 선상의 하인즈컨벤션에서 끝난다.

미셸 우 시장은 이날 보스턴 시내 진입시 MBTA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스턴시는 이날 대중교통의 모든 라인에 배차를 늘릴 계획이다. 특히 웨스트엔드, 다운타운, 백베이 등의 거리 주차는 금요일 오전 12시부터 금지된다.

퍼레이드 노선은 금요일 오전 9시부터 교통이 통제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스턴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스턴 지역은 현재 금요일

일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보스턴시는 이날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물을 휴대하고 실내에 있는 시간을 늘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것을 권장했다.

마이클 각스 보스턴경찰청장은 "아외 음주 또는 마리화나 흡연은 퍼레이드 노선 어디서든 금지된다"고 말하고 동시에 우체통, 전신주, 각종 표지판 등에 올라서는 것도 금지된다. 경찰이 내려오라고 명령했을 때 거부하는 경우 현장에서 체포된다"고 경고했다.

각스 보스턴경찰청장은 "어린이들을 비롯해 전 가족이 참가하는 행사인 것을 기억하고, 싸움, 각종 위협적인 행동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금요일 축하 퍼레이드에는 총 25대의 덕보트가 동원된다. 기상청은 금요일 최고 온도가 80도 후반이며 소나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보했다.

hsb@bostonkorea.com

집에서 만나든 대치율 1% 최상위 커어 프로그램

4주안에 센이 술술 풀리는

중1-1 수학 완성

온라인 특강

- 대상: 한국 중학 1학년 수학 코스를 끝내고 싶은 학생 누구나
- 신청방법: QR 링크에서 신청
- 신청기한: ~2024. 7. 19. (비밀 기준 GMT+9H)
- 교육 iPad 무료대여 및 배송
- 학습진행 성취도에 따라, 최대 80% Payback

CoachON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New Nest Construction LLC

Residential Construction ranging from small handyman jobs to brand new construction. No job is too small.

Fully Licensed GC and HIC
Licensed Realtor at BA Property and Lifestyle Advisors

Phone:
Thomas 339.227.7797
Ruban 978.908.7390

바지핏 살려주는 20분 하체운동 루틴



운동초보자들이 처음부터 강도높은 하체운동을 하다보면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와, 금방 포기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리하여 기본기에 충실하면서도 자극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하체집중 운동루틴으로 구성해봤는데요, 오늘 운동은 20분 분량인만큼 주 3회 정도만 꾸준히 하셔도 하체 근살이 빠져서 한달만에 바지가 제법 헐렁해지는 혹은 딱 끼어 잘맞지 않던 바지가 제법 잘 들어가는 기분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운동은 한국어 영상, '요가워어주는 여자 hayeon' 에서 '하체집중'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브릿지 자세 - 힙업 효과, 코어 강화

1단계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워 엉덩이를 들고 내리는 것을 반복합니다.

2단계 숨을 내쉴때마다 엉덩이를 올려주세요.

3단계 허리가 꺾이지 않게 복부의 힘을 주고 허리를 곧게 펴줍니다.

4단계 10-15회 반복 후 휴식합니다.

TIP! 서서하는 운동전 워밍업으로도 상당히 좋은 운동이니 허리나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이 운동부터 매일 15회 이상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스플릿 스쿼트(런지 변형) - 둔근 강화, 하체 탄력 강화

1단계 한 다리를 앞으로 보내고 천천히 스쿼트 하듯 엉덩이를 뒤로 보내고 앉습니다.

2단계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이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무릎을 구부리세요.

3단계 앞 발의 발꿈치에 체중을 싣고 35초 반복후 반대 방향도 해줍니다.

TIP! 앞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지 않게 정면을 향하도록 주의하세요.



3. 사이드 런지 - 안쪽지 토닝(허벅지 안쪽살 제거)

1단계 두 다리를 멀리 벌리고 엉덩이를 뒤로 보낸 상태에서 무릎을 접어 줍니다.

2단계 오른 무릎을 접을 때는 왼다리를 길게 펴고, 왼 무릎을 접을 때 오른 다리를 길게 뻗어서 안쪽 허벅지의 자극을 느껴보세요.

3단계 숙련자들을 엉덩이를 조금씩 더 뒤로 보내고 깊게 앉는 시도를 해보세요.

TIP! 무릎이 아프지 않게 체중을 발꿈치로

보내고 코어의 힘으로 척추를 곧게 편 상태에서 운동해주세요.



4. 와이드 스쿼트 - 하체 토닝, 골반 교정

1단계 기본적인 스쿼트 자세보다 두발의 사이를 더 멀리 잡아 서줍니다.

2단계 스쿼트로 앉을때 두손을 바닥에 터치 하듯 내렸다가 상체를 일으킵니다.

3단계 무릎과 두번째 발가락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유지해주세요.

4단계 영상을 보며 처음부터 끝까지 (웜업 쿨다운 포함) 다른 운동들도 함께 해주셔야 제대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TIP! 모든 운동의 기초는 코어. 복부의 텐션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운동을 해주셔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송선생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 & 필라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강사로부터 실시간 '자세교정' (1:1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혹은 이메일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치어/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라이브 ZOOM 요가 & 필라테스

전 세계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TALK YOGAFULLNESSLIFE

@YOGASONG_HAYEON

CONNECT@YOGAFULLNESS.LIFE

WWW.YOGAFULLNESS.LIFE





출근·재택 병행하면 더 행복하고 건강...의욕·생산성도 높아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출근과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며, 의욕과 생산성도 높다는 조사·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업무공간 제공업체 인터내셔널워크플레이스그룹(IWG)이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는 영국 직장인 1천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출근·재택 병행 근무가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수준 등 전반적인 웰빙 측면에서 직장인들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9%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로 인한 극심한 피로가 덜해졌다고 답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도 각각 78%, 72%나 나왔다.

응답자의 68%는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도 68%였다. '건강한 식사 준비가 가능해졌다'와 '운동을 더 많이 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58%와 54%였다.

응답자의 86%는 출퇴근 시간 절약으로 늘어난 자유시간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좋아졌으며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더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6%는 하이브리드 근무로 업무에 더욱 의욕적으로 됐다고 평가했으며,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대답도 74%나 됐다.

하이브리드 근무 채택 이후 직업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은 85%에 달했다.

응답자의 4분의 3은 주5일 모두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이 자신들의 웰빙을 해칠 것이라고 봤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주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니 블룸 스탠퍼드대학 경제학 교수의 연구 논문 내용과도 부합한다.

재택근무를 연구해온 블룸 교수는 논문에서 중국의 한 기술기업 직원 1천61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하이브리드 근무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직원들의 직업 만족도를 올린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근무는 또한 여성, 비(非)관리자급, 출퇴근 시간이 긴 직원들의 퇴사를 3분의 1로 줄였다고 블룸 교수는 설명했다.

블룸 교수는 당초 하이브리드 근무에 부정적이었던 관리자가 제도 시행 이후 긍정적으로 변한 사례도 395건에 달했다고 부연했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경영대학의 미래 업무 전문가인 젠 라이머 박사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구직자들이 가장 바라는 혜택이 유연한 근무 체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kp@yna.co.kr



LA 공립학교, 휴대전화 이용 전면 금지...내년부터 적용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교내 금지 정책 검토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의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내년부터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현지 일간지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LA 교육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LA통합교육구 관할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내년 1월부터 발효돼 교육 현장에서 적용된다.

LA통합교육구는 관할 학교의 학생수가 약 40만 명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다.

지금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만 휴대전화 이용이 제한되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허용된다.

LA 교육위원회는 휴대전화가

학습을 방해하고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며 사이버 괴롭힘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을 주도한 닉 멜보인 교육위원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몰래 휴대전화 화면을 넘기거나 복도를 걸으면서도 휴대전화를 본다"며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도 이어폰(이어폰)을 끼고 서로 이야기하거나 놀지 않는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州) 정부도 학교 내 휴대전화 이용 제한 또는 금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에서 "소셜미디어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의회와 협력해 학교에서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a@yna.co.kr

성 안토인 드라비뉴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설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3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and 2024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년 보스턴 매거진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로 선정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Jason Jeon is a real estate broker affiliated with Compas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Source: MLSPin total sales 2023

앤스로픽, 2배 빨라진 AI 모델 출시... "오픈AI 등 경쟁사 능가"

차트·그래픽 해석 등 시각적 추론, 코딩 능력 갖춰, 1조달러 규모 시장서 기술 경쟁 점점 치열해져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경쟁사인 앤스로픽(Anthropic)이 20일(현지시간) 업계 최고 수준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3.5 소네트(Sonnet)'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앤스로픽은 지난 3월 '클로드 3' 모델을 3가지 버전으로 출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 공개한 클로드 3.5 소네트는 이전보다 한 단계 진화한 3.5 모델 제품군 중 첫 번째로 선보이는 제품이다.

클로드 3.5 소네트는 이전 모델 클로드 3의 가장 강력한 버전인 오푸스(Opus)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작동하며 차트나 그래프 해석과 같은 시각적 추론 능력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앤스로픽이 공개한 자체 평가 자료에 따르면 클로드 3.5 소네트는 멀티모달(복합정보처리) 과제 수행 결과, 차트 이해도와 문서 이해도 부문에서 각각 90.8%, 95.2%의 점수를 받아 오픈AI의 GPT-4o(차트 이해도 85.7%, 문서 이해도 92.8%)를 앞섰다. 아울러 클로드 3.5 소네트는 정교한 추론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도구가 주어질 경우 독립적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편집, 실행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회사 측이 선보인 예시 영상에서 이 AI 모델은 '해변에서 계와 조개가 등장하는 8비트 스타일의 게임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에 따라 간단한 아케이드 게임을 금방 만들어 냈다.

클로드 3.5 소네트는 클로드 전용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일정 한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료 구독자는 훨씬 더 큰 한도로 접근할 수 있다.

앤스로픽의 공동 창업자이자 사장인 대니엘라 애머데이는 "우리의 평가에 따르면 클로드 3.5 소네트는 업계에서 가장 지능적인 모델"이라며 "기업들이 선택하는 AI 모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다.

앤스로픽은 오픈 AI의 창립자 그룹 일원이었던 대니엘라와 다리오 애머데이 남매가 2021년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구글과 아마존이 각각 20억 달러와 4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지난해 5번의 펀딩을 통해 총 73억 달러를 끌어모았다.

미 경제매체 CNBC는 "10년 내 1조 달러(약 1천39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성형 AI 시장에 오픈AI와 앤스로픽 같은 스타트업들이 가세하면서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기술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mina@yna.co.kr



앤스로픽 로고

'오픈AI 쿠데타' 수츠케버, AI회사 설립... "안전한 초지능 구축"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지난해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축출 사태를 주도했던 오픈AI의 공동 창립자 일리아 수츠케버가 새로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수츠케버는 19일(현지시간)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나는 새 회사를 시작하고 있다"면서 'SSI Inc.' (이하 SSI)란 이름의 새로운 회사 계정을 소개했다.

이 계정에 게시된 글에서 수츠케버는 "안전한 초지능(safe superintelligence, SSD)을 구축하는 것은 우

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문제"라며 "우리는 안전한 초지능이라는 하나의 목표와 제품(안전한 초지능)으로 세계 최초의 SSI 연구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SSI는 우리의 임무이자 이름이며 전체 제품 로드맵이기도 하다"며 "우리 팀, 투자자, 사업 모델은 모두 SSI를 달성하기 위해 정렬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단일한 초점은 경영진이나 제품 주기로 인한 방해가 없으며 우리의 사업 모델과 안전·보안과 기술 진보가 모두 단기적

인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분리돼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태생으로 캐나다 토론토대에서 컴퓨터 신경망 연구를 시작해 구글 연구소에서도 일했던 수츠케버는 2015년 올트먼 등과 함께 오픈AI를 설립하고 이사 겸 수석과학자 역할을 맡아 챗GPT 개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AI 개발 속도와 안전성 문제 등을 두고 올트먼과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해 11월 오픈AI 이사회가 올트먼을 CEO에서 해임하는 데 앞장섰다.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성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해의의료시업팀장 김수남

美 동북부·중북부 이번 주까지 찜통더위...6월 폭염 이례적

여름 선선했던 메인주 열돔현상 '폭폭 찌는 더위'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미국 중북부와 동북동 지역에 형성된 '열돔'(Heat Dome)이 지표면을 달구면서 이 일대 일부 지역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더운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미 기상청(NWS)의 기후예측센터(WPC)는 19일(현지시간) 예보에서 "폭염이 앞으로 며칠간 중북부에서 오하이오강 일대, 오대호, 동북부, 동부에 이르는 지역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일대 다수 지역에서 19~20일 중 체감온도를 나타내는 열지수가 섭씨 38도에서 40도에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열질환에 주의해 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이 지역 수은주를 끌어올린 주된 이유는 미 동북부와 중북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열돔' 때문이다.

열돔은 고기압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현상으로, 공기가 풍선처럼 가워진 가운데 뜨거운 햇볕이 열돔 내 공기를 '오븐처럼' 계속 가열하면서 폭염을 유발한다.

앞서 미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

오클라호마주 등 중부 및 남부 지역도 지난달 하순부터 열돔으로 인한 폭염에 시달려왔다.

이 같은 열돔은 미국 남부와 남서부 지역에서는 여름에 종종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6월 들어 동북부 지역에서 형성돼 폭염을 유발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열돔 현상으로 인해 메인주를 비롯해 버몬트주, 뉴햄프셔주 등 미 동북부 지역의 상당 수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들 지역은 이번 주까지 평년보다 10도가량 높은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와 인접한 미 동북부 끝자락의 메인주 카리부시의 경우 19일 낮 최고기온이 36도로 예보돼 4년 전 낮 기온 최고기록과 동률을 기록할 것으로 지역 기상청은 예상했다.

메인, 버몬트, 뉴햄프셔주 등은 위도가 높고 산악 지형이 많아 여름철에도 상대적으로 덥지 않은 지역으로 꼽힌다.

6월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지 않는 날이 많다 보니 냉방장치를 갖추지 않은 가구 비중이 높아 이번 폭염



동북부 폭염이 지속되는 뉴잉글랜드지역은 주말부터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예보다.

으로 온열질환 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기예보서비스 아쿠웨더의 폴 파스텔록 수석 기상예보관은 "이런 유형의 강한 폭염을 보는 것은 평범하지 않으며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메인주는 주 전역에서 도서관이나 각종 공공시설을 더위 쉼터로 개방해 주민들에게 더위를 피할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뉴욕주도 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19~20일 이틀간 주요 주

립공원을 무료로 개방하고 공공 야외 수영장 개장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뉴욕주의 주도인 올버니는 19일 낮 최고기온이 35도로 예측됐다.

열돔 현상은 오하이오, 미시간, 인디애나주 등 오대호 연안 중북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북부 최대 도시인 시카고는 지난 17일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면서 도서관, 공공시설 등을 더위 쉼터로 일찌감치 개방했다.

시카고의 경우 폭염 관련 기상특보가 내려진 상황은 아니지만, 여름

철 주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시 당국은 설명했다.

21일까지 폭염경보가 발표된 피츠버그는 19~21일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미 중북부와 동북부를 뜨겁게 달구는 열돔 현상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지며 주말 들어서야 다소 약해질 전망이다.

미 기상청 기후예측센터는 "이번 주말 들어 동북부(뉴잉글랜드) 지역의 더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내다봤다.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우크라 무기지원 재검토 초강수...북러 vs 한미 '신냉전' 회귀하나

동맹 수준 북러조약, 심각한 안보위협 판단

북러 밀착에 한미도 결속력 키워...신냉전 대결구도 고착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북한과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를 겨냥해 정부가 20일 대(對)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카드라는 초강경책을 꺼내 들면서 한러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북러의 밀착에 대응해 한미 역시 결속 강도를 높이면서, 자칫하면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성명'을 발표하면서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대규모 살상무기를 지원할 경우 2년째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이 묶인 러시아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러시아가 한국에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레드라인'임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 전부터 북러간 협력이 한반도 평화·안정에 저해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러시아에 전달했고, 합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터였다. 그런데도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시 자국의 군사적 개입 여지를 담은 조약을 새로 체결하고 대북 첨단 군사 기술 지원 가능성까지 위협하자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판단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의 대러 제재 참여를 시작으로 양국 관계가 계속 악화하는 중에도 양국은 관계 관리 필요성에 수시로 공감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러시아 정부의 '유화 메시지'를 계기로 돌과구가 마련되나 싶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됐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와 동북아 '신

냉전' 구도에 얽매인 현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실행까지 나아간다면 러시아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다. 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2년 이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과는 더욱 단단하게 결속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조약을 계기로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러의 연합군사훈련 가능성에 대해 "극동 지역의 러시아 군은 아직 그대로 있다"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할수록 한미 역시 억제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만큼 한반도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뚜렷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kite@yna.co.kr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인식.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쌍방 사이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이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JUNE 21st - JUNE 27th, 2024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SUMMER STARTS WITH MANGO BINGSU

Transport yourself to tropical bliss with this recipe that'll cool you down and melt in your mouth!

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망고빙수를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Sweet Potato 고구마 10 LB/BOX \$17.99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	Sand Pear 샌드 배 LB \$2.99	Kabocha 단호박 LB \$0.99	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
Red Cherry 레드 체리 LB \$4.99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Ginger 생강 LB \$2.99	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EA \$5.99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3.99 FOR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9.99	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생 돼지 갈비 (바베큐용) LB \$3.49
Fresh Sliced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LB \$7.99	Fresh Boneless Chicken Thigh 생 뼈없는 닭 사태 LB \$3.49
Marinated Tenderized Pork CT Butt Steak 양념 돼지 볶집 목살 스테이크 LB \$5.99	Marinated Boneless Chicken Thigh 양념 닭사태 LB \$2.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Chilean Sea Bass Steak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LB \$19.99	TONGTONGBAY Frozen Seafood Mix 통통배 해물모듬 1 LB/PKG \$4.49
Head-on Black Tiger Shrimp 머리있는 블랙 타이거 새우 LB \$24.99	Frozen Branzino 브란지노 600-800'S/LB \$4.99
TONGTONGBAY Dried Dasi Anchovy 통통배 다시 멸치 PRODUCT OF KOREA 1 LB/PKG \$8.99	Fresh Kingfish 킹피쉬 LB \$6.99

SMART CARD MEMBER ONLY

NONGHYUP Yecheon Korean Rice 농협 예천 일품쌀 22 LB \$24.99	SAMYANG Ramen 삼양 삼양라면 4.23 OZ X 4 EA/PKG \$4.99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10.99	HAITAI Ace Cracker 해태 에이스 크래커 12.84 OZ \$3.99

OHSUNG Hong Ramyun 오성 홍라면 MILD/HOT & SPICY 4.2 OZ X 5 EA/PKG \$3.99	HAIO Yaki Sushi Nori Premium Roasted Laver 해오름 구운 스시김 50 SHEETS 4.93 OZ \$6.99	SUNGGYUNG FOOD Seasoned/Green Tea Sliced Laver 성경 재래식/녹차 도시락김 0.14 OZ X 16 EA/PKG \$5.99	HAIO Seasoned Bean Paste [Ssam-jang] 해오름 사계절 원조 쌈장 2.2 LB \$2.99	CHUNG JUNGONE Oligosaccharide 청정원 건강원 올리고당 2.64 LB X 2 EA/PKG \$6.99
TODAY'S FARM Free Range Grade A Large Brown Eggs 투데이스 팜 방목형 A등급 황란(대) 1 DOZ/PKG \$3.99	AYAMYOOK Luncheon Meat 아얌육 런천미트 12 OZ \$2.99	SAMPO Canned White/Yellow Peach 삼포 황도/백도 통조림 14.11 OZ \$1.99	ORION Turtle Chips 오리온 꼬북칩 SWEET CORN 2.82 OZ X 7 EA/BOX \$10.99	K TOWN Dukboki Snack 케이타운 쌀떡볶이 스낵 5.29 OZ \$1.99
SAMYANG Chang Gu Honey Crunch/Pop Corn Snack 삼양 찜구/사또밥 CHANG GU - 4.06 OZ POP CORN - 2.36 OZ \$1.99	HAITAI Crushed Pear Drink 해태 갈아만든 배 8.04 FL OZ X 12 EA/PKG \$10.99	SKIN APPLE Mask Packs 스킨애플 폼아쓰는 마스크팩 PEPTIDE & COLLAGEN/YUJA & VITAMIN C/HYALURONIC & AQUA 30 SHEETS PKG \$7.50 (was \$14.99)	CAPSTONE Gas Burner 캡스톤 가스렌지 \$37.99 \$22.99 PINK EA	SKINFOOD Water Parsley Clear Pad 스킨푸드 파슬리 (미나리) 스킨토너패드 60 PADS/EA \$13.99 (was \$27.99)

UNTIL JUNE 27, 2024

JINGA
모듬장아찌

PICKLED ASST. VEGETABLES
Every Body's Favorite Banchan!

~~\$7.99~~
\$4.99 (13 OZ/PKG)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ellys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ahn@bostonpremierrealty.com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c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김지현 978.494.2043 jhykim@bostonpremierrealty.com	 노미 617.447.0501 mi@bostonpremierrealty.com	 박주 617.780.7639 ju@bostonpremierrealty.com	 박지 978.866.3248 ji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진우 401.538.3397 jinwoo@bostonpremierrealty.com
 박소 617.338.0787 so@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팍 617.455.7710 gracepark@bostonpremierrealty.com	 한수연 617.528.6973 soyeon@bostonpremierrealty.com	 민소 253.503.0347 minso@bostonpremierrealty.com	 박지 413.507.1400 jipark@bostonpremierrealty.com	 손정태 617.913.3348 sonj@bostonpremierrealty.com
 최진길 617.877.0387 jin@bostonpremierrealty.com	 이정순 781.836.3412 soon@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숙 781.959.1214 heesook@bostonpremierrealty.com	 박지현 617.915.1162 jihyeon@bostonpremierrealty.com	 이중국 617.543.0728 jung@bostonpremierrealty.com	 박지 404.641.9192 jipark@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94.58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482 nancywang@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531.0314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e 617.936.2713 vivianye@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iong 248.449.0117 jiong@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rra 978.873.0076 msorra@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8.26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6.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정혜민 박 201.446.8995 min@bostonpremierrealty.com	 재미크 김 781.596.0409 mik@bostonpremierrealty.com	 이신현 857.260.0434 shin@bostonpremierrealty.com	 Mini Belanger 413.257.1586 mini@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검찰 "이재명, 경기도 대북사업 철저히 관리"...공소장 적시

"이 대표, 쌍방울 대납도 보고 받아"... 김성태에겐 "좋은 일 해줘 감사"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차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경기도 대북사업 정책을 세밀하고 철저히 관리했다고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달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약 50쪽 분량의 이 대표 공소장에는 그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으로부터 대북사업 등 중요 사항들을 수시로 보고 받았으며, 자신의 지시와 승인하에 대북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적시됐다.

도지사 방북 추진 등에 대해 "이화영이다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 대표의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시각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통한 스마트팜 지원 추진 상황을 보고 받은 것은 물론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북측에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승인했다.

2019년 1월 17일 쌍방울이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태위원회와 대북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진행된 만찬에 이 전 부지사가 참석해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전화 통화를 연결해 줬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과 사업을 잘해보겠다"고 말하자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만찬에서 "이화영 형이 사고 쳐서 내가 생돈 쓴 거 아니냐"라고 말했고, 북측에선 "형이 사고 치면 동생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냐"라고 말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적극 개입했다고 공소장에 썼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이 대표는 도지사 방북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경기도 정책실장 등 정무회의의 구성원들이 이 전 부지사에게 도지사 방북을 적극 추진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5월 11일 중국 단둥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경제협력 합의를 앞둔 김 전 회장을 만나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을 통한 도지사 방북 추진 상황을 이 대표에



이재명 대표

게 보고했고,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북한 측이 요구한 방북 의전비용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승인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그해 7월 하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 태평양반영국제대회에서 이 대표에게 전화해 회의에 참석한 김 전 회장을 바꿔주면서 양측은 재차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이 당시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북측으로부터 방북 비용 500만 달러를 요구받자 단동 협약식 체결 후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

에서 이 전 부지사를 만나 "내가 호구도 아니고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기도는 2019년 5월, 6월, 9월, 11월 북한 조선아태위원회를 수신자로 해 경기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방북 초청 요청 공문을 연달아 전달했다.

이에 북측은 그해 12월 6일 중국 선양에서 경기도 공무원들과 함께 출장은 대북브로커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에게 "이미 세 차례(도지사 방북) 요청이 있음을 잘 알고 있고 필요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대내외적 상황으로 올해는 어려운 것 같고 내년 초로 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대표의 제3차 뇌물 혐의는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이같은 혐의 기소를 두고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you@yna.co.kr

'이화영 대북송금' 수사 검사 "술자리 회유 등 주장 사실 아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당사자로 지목된 수사 검사가 20일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 입장문을 냈다.

수원지검 소속 박상용 부부장(43·사법연수원 38기)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화영 경기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부장은 202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등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 등에 대한 실무수사를 진행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대상 검사 4명 중 한 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해외 연수 중이다.

박 부부장은 이날 "이화영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등) 1심 판결이 임박

하자 이화영과 일부 공당에서 검찰청 술판 의혹 등 허위 주장을 하며 수사 과정에 대해 조직적인 비방을 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출정일지, 조사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로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일부 공당으로부터 2019년 울산지검 청내 행사와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음주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며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부장은 "저는 검사로서 주어진 직분에 따라 눈앞에 보이는 범죄를 충실히 수사했고 어느 검사가 제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검사로서 직분에 충

실했다는 이유로 현재 저는 물론 가족까지 모욕과 인격 침해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박 부부장은 "앞으로 의혹 제기를 방제한 악의적인 인격 침해와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엄중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올해 4월 자신의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술자리 회유'를 처음 언급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대북송금 사건을 조사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 등을 먹고 소주를 마셨으며, 검찰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보고'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you@yna.co.kr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 ... "특기소는 공권력 남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 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사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4명으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인 장 의원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 6월 19일수요일 ▶ 오픈하우스 ▶ 6월 19일수요일 ▶ 오픈하우스 ▶ 6월 19

▶▶ 무료입장



노예해방일 ▶



MFA Boston

▶ Museum of Fine Arts, Boston

In partnership with

Citizens®

Lois Mailou Jones, Ubi Girl from Tai Region, 1972. Acrylic on canvas. The Hayden Collection—Charles Henry Hayden Fund. © Lois Mailou Jones Pierre-Noel Trust.

Norval Morrisseau, Bear Father, Bear Son, 1989. Acrylic on canvas. The Betty Mayland Ellis Fund for Canadian Paintings. Authentication and Permission granted by the Estate of Norval Morrisseau.

▶ @mfaboston으로합께하세요 ▶ 자세한내용은 mfa.org에서 ▶ @m

꿈을 향해 질주한다면 지뢰밭도 두렵지 않다...영화 '탈주'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할리우드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 '쇼생크 탈출'(1994)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앤디(팀 로빈스 분)가 필사적으로 그곳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다.

'쇼생크 탈출'이 많은 사람에게 인생 영화로 남은 것은 단순한 탈출 이야기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관객은 앤디가 그토록 벗어나려고 했던 쇼생크 교도소가 어쩌면 우리의 일상을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데 생각이 미치면서 자유를 향한 앤디의 몸부림을 잊을 수 없게 된다.

이종필 감독의 신작 '탈주'도 북한 군인이 남쪽으로 귀순하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로 관객에게 다가오면서 깊은 울림을 남긴다.

주인공 규남(이제훈)은 남북한이 대치하는 비무장지대 북한군 최전방 부대의 군인이다. 10년이나 되는 군 복무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의 마음은 제대 후 돌아갈 북한 사회보다는 비무장지대 건너편에 있다.

남쪽으로의 귀순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규남은 같은 부대 병사 동혁(홍사빈)이 먼저 귀순을 시도하다가 발각되면서 공모자로 몰린다.

이 사건의 조사를 위해 보위부에서 파견된 장교 현상(구교환)은 옛 인연을 생각해 규남을 위기에서 구해주지만, 귀순을 향한 규남의 열망은 꺾이지 않는다.

지뢰로 가득한 비무장지대를 목숨 걸고 가로지르는 규남과 그를 집요하게 추격하는 현상을 중심축으로 한 '탈주'는 규남의 전력 질주만큼이나 속도감 있게 이야기를

풀어낸다.

규남의 불행한 과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규남이 불침번 근무를 하다가 몰래 남쪽의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에서 흘러나오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를 듣는 동안 그의 과거가 한편의 뮤직비디오처럼 압축적으로 펼쳐진다.

규남의 귀순 과정에서 빚어지는 총격전과 자동차 추격전도 볼거리다. 비무장지대를 공간적 배경으로 한다는 설정에 맞게 드넓은 풀밭과 숲, 산과 언덕에서 빠른 액션이 전개되면서 시원한 느낌을 준다.

'탈주'는 북한군과 비무장지대를 사실감 있게 묘사하기보다는 다소 현실과 어긋나더라도 과감하고 개성적인 스타일의 영상을 펼쳐내는 데 집중한다. 이에 따라 영화 속 시공간과 사건은 현실적 맥락에서 벗어난 환상의 느낌을 띤다.

이는 '탈주'가 남북 분단 현실이나 이데올로기 대결에 관한 영화가 아니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 이 영화는 '쇼생크 탈출'처럼 감옥 같은 현실에 스스로 갇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향한 이야기다.

꿈을 위해서라면 현재 소유한 모든 것, 나아가 삶 자체까지도 걸 수 있는 규남과 안전한 현실을 위해 꿈을 포기해버린 현상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강렬한 여운을 남긴다.

주어진 메시지를 접하는 것보다는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영화의 묘미라고 한다면, '탈주'의 접근 방식은 다소 아쉬움을 남기기도 한다. 규남과 현상의 대사만 봐도 메시지가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영화의 메시지는 아직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관객, 특히 젊은 관객



의 깊은 공감을 끌어낼 만하다.

규남 역의 이제훈은 숨이 넘어갈 듯 전력 질주할 뿐 아니라 진흙탕에 몸을 던지는 등 혼신의 연기를 펼친다. 현상을 연기한 구교환은 극에 미스터리와 유머를 불어넣는다.

'탈주'를 연출한 이 감독은 대기업에 반기를 든 고졸 여성 사원들의 이야기인 '삼진그룹 영어토익반'(2020)으로 유명하다.

주어진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두 작품은 맥이 통한다.

이 감독은 '탈주'에 대해 "단순히 귀순 병사의 탈북기가 아니다. 주인공은 아프리카의 청년일 수도 있고,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모두일 수도 있다"며 "운명처럼 정해진 세상에서 이탈해 자신만의 길을 가려는 인간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PGA**

617.458.2733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Store for sale



Charleys Philly steak sandwich

장소 : 보스톤 큰 몰에 위치
매매 가격 \$500,000.00
Profit: 2년안에 투자금 회수
스토어 리스 9년 가맹점 계약 10년
Owner 69세 은퇴

연락처 : 781.778.8665 미국,
416.817.0888 토론토
이메일 : ppr149@gmail.com

Realtor 사절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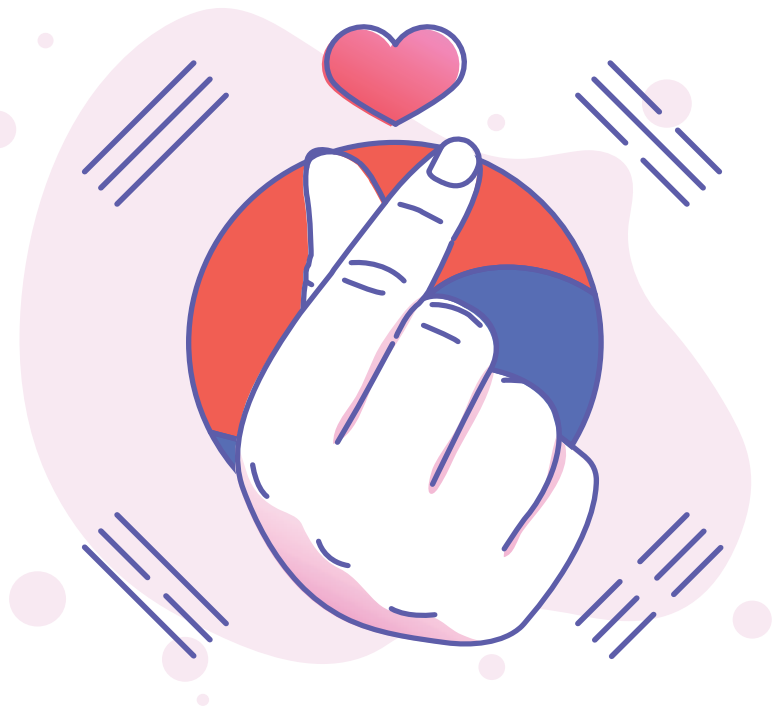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K-Culture Contest



K-pop, Dance, 전통악기 연주, 사물놀이, 농악 등 한국을 상징하는 공연예술

- * 참가 자격: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 환영
- * 참가 방법: 개인이나 단체의 5~7분 가량의 공연을 e-file 로 제작하여 e-mail 로 접수(swpark@comcast.net)
- * 심사 방법: 2024년 7월 20일까지 접수된 팀 중에서 3개 팀을 선발하여, 동년 8월 18일(일), Portsmouth, NH 에 소재한 "Strawberry Banke Museum"(야외)에서 개최될 "NE BIPOC FEST" 행사장에서 결선 공연으로 우승팀 선발 (우승팀은 청중들에 의해서 선발)
- * 상금: 1등: \$1,000.00
2등(2팀): 400.00 씩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GC)
- * 문의: 박선우(603-767-1356)



주최: 뉴햄프셔 한인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94) 조심해야 하는 뜨거운(Hot) 종목

코로나로 '집콕' 생활과 정부 경기부양 정책의 막대한 자금이 게임스톱, AMC 엔터테인먼트 등 밈(Meme) 주식과 테마 펀드 투자로 순식간에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끊임없었다.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열마나 배가 아픈 일' 인가? 주위 여기저기에서 주식투자자로 돈 벌었다는 무용담을 듣고 본인만 대박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고민 끝에 주식 투자를 결정한다. 그리고 첫 번째 난관인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가에 고심한다.

투자 종목 대부분은 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에 자주 등장하는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한다. 한마디로 그시점 뜨거운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테마 펀드의 투자는 2021년에 거의 2,000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1,200억 달러로 폭락했다. 테마 펀드 역시 급락하며 캐시 우드의 ARK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는 수십억 달러를 이 공간으로 끌어들이었지만, 모닝스타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를 최악의 '자산 파괴자

(Wealth Destroyer)'라고 평가했다. 지난 10년간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이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들도 대마초 투자, 청정에너지, 메타버스 등 다양한 테마의 상장지수펀드 수백 개를 인기에 힘입어서 출시했지만, 그 이후로 많은 펀드가 문을 닫았다. 투자자들이 지난 9분기 연속 미국에 기반을 둔 테마형 펀드에서 돈을 빼냈고, 유출된 금액은 거의 2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뜻은 인기에 힘입어 투자한 수많은 투자자의 자산 손실로 이어진 것이다.

테마형 펀드는 특정 종목을 강세에 이어 출시되는 경우가 많아 시장 최고점 근처에서 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3년 전 출시된 성장지향형 테마형 펀드 중 상당수는 수익률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팬데믹으로 주식 열풍일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간 주식 전문가인 테슬라의 '배터리의 날' 최고경영자의 말을 밤새워서라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회사 경영

방침 등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 주식 투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실현성이 없는 조언이다.

회사의 경영방침, 경영인의 마음가짐, 경쟁사, 영업보고서, 전략, 시장지배력, 자산, 빚, 수익성, 대차대조표, 부채비율, 등을 파악해도 미래의 기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기업을 방문해도 회사의 운명은 알 수 없다. 회사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누가 이런 사실을 말하겠는가? 사실을 안다고 해도 미래의 운명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주식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투자자로부터 투자 돈을 모아서 유명한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펀드 매니저는 속된 말로 밥만 먹고 하는 일이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투자하고자 한다. 주식 정보나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나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다. 그런데 이런 투자 전문가조차도 85%가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보다도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2021년 새해에 게임스톱 주식이 1,600% 급등하며 순식간에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여러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에 연일 쏟아져 나왔다. 여기에 기술주와 코인 투자의 열기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자고 일어나면 불어나는 투자 돈의 달콤한 유혹을 견디기 어렵다.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는 소위 '영끌' 투자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투자 대박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물지만 투자(FOMO, Fear Of Missing Out)' 를 감행한 것이다.

올해(6/12) 주식시장은 14.5% 상승했고 네스탁은 19.6%로 상승했다. 지난 5년은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15.75%이다. 투자한 돈이 2배 이상 불어난 놀라운 수익률이다. 나의 소중한 돈이 500대 기업에 투자되기에 투자 위험성도 그만큼 감소한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식 가격을 수시로 확인하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떨리할 수 있다. 어느 한때 뜨거운 종목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 주식시장(S&P 500)에 투자하면 주식시장이 창출하는 높은 수익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34))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남보는 비록 몸은 화랑을 떠났지만 풍월주 김용춘을 향한 충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자신의 가산이 모조리 없어질 때까지 용춘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결사대를 모아 그를 계속 호위하였다. 마침내 대남보의 가산이 모두 소진되자 그의 처와 세 아들은 삼겹질을 벗기면서 연명하게 되었다.

이를 알게된 김용춘은 자책하다가 대남보의 장남 학열을 승부乘府의 오지烏知(15등급의 대오大烏나 16등급의 소오小烏로 짐작된다)로 천거하였다. 또한 세 아들 모두 화랑에 입문하였고, 후일 14세 풍월주 김호림은 그들을 모두 낭두로 임용하였다. 이 중 장자 학열의 아들이 임금과 나라를 위해 충절을 바친 인물로 삼국사기에 화려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대남보의 기록은 없다. 그래서 삼국사기만 보면 학열과 대남보의 관계를 전혀 알 수 없다.

다음은 삼국사기 권47(열전 권7)에 등장하는 '13인의 전사' 들이다. 이들이 해론, 소나, 취도, 눌최, 설계두, 김영운, 관창, 김흠운, 열기, 비령자, 죽죽, 필부 그리고 계백이다. 백제의 장수 계백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라의 충신들이다.

그간(박창화의 필사본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역사학계 통설은 아마도 계백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화랑세기에 그들의 세계世系와 활약상이 자세하게 나오는 인물들이기에,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이를 참

고하여 간단히 그들의 업적을 기술했다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필사본에는 김흠운과 그의 아들 반굴과 손자인 김영운 등 만이 나오고, 삼국사기에 나오는 다른 화랑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학자들이 추측한 것이 맞지 않으니 필사본을 위서라고 단정한다. 즉 필사본이 등장하기 전에는 열전 제7권의 계백을 제외한 신라의 '12명의 전사' 들이(화랑세기)의 '주인공' 들이라고 믿었는데, 막상 필사본의 내용을 보니 그 주인공은 32명의 풍월주들이었다. 결국 김흠운만 19세 풍월주로 주인공 중의 한 명이였다. 하지만 면밀히 두 사서를 비교하고 교차검증해보면 필사본은 도저히 창작할 수 없는 진본임이 확인된다.

삼국사기 열전의 죽죽竹竹의 기록으로도 필사본이 진본을 필사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 삼국사기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대야주(경남 합천) 사람으로 아버지 학열은 찬간撰干을 지냈다. 사지舍知로서 대야성 도독 김품석金品釋 휘하에 있었다. 선덕왕 11년 가을 8월에 윤충允忠이 이끄는 백제군에게 대야성이 함락당하게 되고, 품석 또한 처자식을 죽이고 자결하자, 남은 졸병을 모아 끝까지 항거하다 부하 용석과 함께 죽었다.〉

죽죽은 13등급의 관위인 사지로 대야성 성주 김품석을 보좌하였다. 김품석은 김품일 장군의 동생이며, 고타소공주의 남편으로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사위이다.

고타소의 어머니는 보라공주이다. 이 보라공주가 미실의 손녀이다(보라의 부모는 보종과 양평공주이고, 보종의 부모는 설화랑과 미실이다. 양명의 부모는 진평왕과 보명공주이다). 선덕왕 11년은 642년이다.

후세 사람들은 부하 검일의 부인을 가로챈 성주城主 김품석보다 하급 군인 죽죽을 충신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죽죽은 화랑세기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13세 풍월주 용춘공주에 보면 찬간(485) 학열이 대남보의 아들로 등장한다. 즉 삼국사기 열전에 죽죽의 아버지로 소개된 학열이 대남보의 아들인 것이다. 이렇듯 화랑세기에는 아버지의 아들로, 삼국사기에는 아들의 아버지로 단 한 차례씩만 등장하는 학열을 통하여 충신 죽죽의 할아버지가 미천한 출신의 부자富者 대남보라는 가족관계가 입증된다. 그리고 학열과 죽죽의 성이 대대씨임도 밝혀진다.

485) 찬간撰干은 선간撰干을 다르게 표기한 관등으로, 11등급이며 지방의 세력가에게 준 외위外位의 하나이다. 경위京位의 나마奈麻에 상당한 벼슬이다. 그러나 674년(문무왕 14년)에 일률적으로 경위를 주었기에, 따라서 외위는 자연스럽게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대남보는 비록 천민이었지만 재산이 많아서 그가산을 모두 풀어 김용춘에게 충성을 다 하였다. 또한 용감하고 일을 잘 처리했으며 급인지풍急人之風(남의 위급함을 구해주는 의협스러운 풍채)이 있어 많은 낭도들이 그를 우러러 보며 따랐다. 대남보는 스스로 많은 낭도들을 모아 김용춘을 호위하기도 했다. 대남보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김용춘을 사모하여 유희遊花되기를 거부하고 홀로 그를 위하여 정절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용춘은 신선굴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대남보의 딸뿐만 아니라 다른 낭도들의 딸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그만 우물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자살소동' 을 일으켰다. 용춘공이 그녀를 마지못해 첩으로 삼은 것으로 보아 죽지는 않았다. 그리고 신선굴의 형성을 피하기 위하여 대남보를 낭두의 직에서 사직시켰다. 아쉽게도 충직하고 의협심이 강한 화랑의 낭두 한 명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의 재능을 익히 알고 있었던 진평왕은 그를 등용하여 궁사지함숙제에 임명하여 궁궐의 재용財用을 관장하게 하였다(궁사지는 신라의 경위 17관등 중에서 13등급인 사지舍知와 동등한 직급인지는 알 수 없다). 대

40 Celebrating **years** **H MART**
Since 1982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JUNE 20th - JUNE 27th, 2024

HELLOKITTY 50th Anniversary

Limited Edition (Stainless Food Jar/Mug)

헬로키티 50주년 기념 한정판(죽통/텀블러)

0.35 L/EA
~~REG. \$48.49~~

\$24.99



0.48 L/EA
~~REG. \$56.99~~

\$29.99



HAITAI ICE

BRAVO Ice Cream Cones

3 Vanilla + 3 Chocolate

해태 부라보콘

5+1 기획팩

~~REG. \$13.99~~

\$7.99

5.41-5.07 FL OZ
X 6 EA/PKG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집을 짓는 과정

많은 한국 분들이 나에게 집을 짓고 싶다는 분들이 많다.

이제 우리 이민 역사도 오래 되어서 그냥 집 마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집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

그럼 오늘은 집을 짓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다.

첫 단계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한다. 땅을 사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

1. 현재 나온 집을 사서 헐고 짓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다. - 이 경우에는 이미 물 파이프

라인이든 전기 라인도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데 많은 것을 절약할 수 있다.

2. 개인에게 땅을 사는 방법이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 대대로 물려 받아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고, 개인이 살고 있는 집 땅이 큰 경우 이를 나눠서 파는 방법도 있다.

3. 정부나 타운에게 땅을 사는 방법이다. 타운은 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타운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파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대부분 집을 짓는 개발자들에게 파는 경

우가 많다.

땅을 마련한 후에는 서베이(Survey)를 하는 회사를 고용해서 땅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한다. 이 땅이 물이 들어 올만한 곳에 있는지 땅에 흠에 문제는 없는지 등이다.

그 다음에는 건축사(Architect)를 고용해서 도면을 그려야 한다. 땅 도면과 집 도면도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도면도는 타운에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

이 도면을 가지고 실제로 누가 집을 짓는 걸 책임 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종합건축업체(General Contractor)를 고용해서 이 건축업체가 집이 다 완성 될 때까지 집을 짓는 일을 다 할 것인지 이 경우 건축업체가 알아서 책임지고 건축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

또 한가지 방법은 본인이 각 부분별 건축업체(sub-contractor)들을 고용해서 집을 짓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으면 매우 힘든 과정이 될 수가 있고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대부분의 종합건축업체(contractor)들은 본인이 쓰는 하청 업체(sub-contractor)들이 있어서 더 싸게 견적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집을 짓는데 8단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 서류로 타운에 등록을 하면 현장에 나와서 허가(write off)를 해준다.

주택건축(Contractor)의 경험이 없으면 집을 짓는 게 힘들 수도 있다고 했는데 항상 처음이라는 게 있다. 집을 사람과 같다. 완벽한 집이 나오기는 힘들지만 처음을 겪으면 이 과정에 익숙해질 것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6월 23일 - 6월 29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 운수: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게 되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 금전: 이익이나 금전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현실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더는 마음속은 안 그런데 차마 말 못해서 그런척하면서 넘어가지 마세요. 차라리 싫으면 싫다고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5, 28일 길일. 23, 26일 주의.

소띠 |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 운수: 불안정하고 궁지에 몰리는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주변 사람들과 말을 줄이고 조용히 지나가길 기다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 금전: 불안한 상태에서 다소 용동이 되나 아직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애정: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세요. 자신은 모르지만 정작 기다리는 사람은 지쳐다 못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6, 29일 길일. 24, 27일 주의.

범띠 | 행운이 함께 하는

- 운수: 죽은 벼들에서 꽃이 피듯이 현실을 직시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일도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 금전: 지출이 많이 하게 되더라도 곧 다시 들어오는 운이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 애정: 행운이 함께 할 것입니다. 좋은 곳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즐거운 시간도 갖게 되겠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3, 27일 길일. 25, 28일 주의.

토끼띠 | 그리움을 되새기게 되는

- 운수: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가깝게 지내던 지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심기일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금전: 큰 어려움은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씩씩이는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추억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기억들, 간직한 그리움을 되새기게 되는 주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4, 28일 길일. 26, 29일 주의.

용띠 |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는

- 운수: 발 벗고 따라가야 합니다. 남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는 주입니다. ● 금전: 돈이란 없다고도 있고 있다고도 없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어도 만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애정: 농담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말장난이 지나치면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갈 수 있으니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5, 29일 길일. 27, 28일 주의.

뱀띠 | 의욕이 샘솟고

- 운수: 사람이 죽으려 법은 없나 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모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 금전: 하는 일에 대한 의욕이 샘솟고 부지런히 뛰어나게 됩니다. 수입이 늘어나고 모든 일에 자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 애정: 드디어 서로가 인생의 동반자로 부족함이 없다는 대목에서 뜻이 통하 됩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4, 26일 길일. 25, 28일 주의.

말띠 | 서두르지 않도록

- 운수: 어떤 일을 하려고 할수록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 될 수 있으니 서두르지 않도록 합니다. ● 금전: 돈 쓸 일이 많이 생기는 주입니다. 지출이 많으면 많이 벌어도 소용없으니 신중하게 지갑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의심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4, 27일 길일. 26, 29일 주의.

양띠 |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 운수: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직장인은 크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 금전: 현 상태에서 투자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상대에게 충실하려고 하는 만큼 상대도 의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3, 28일 길일. 27, 29일 주의.

원숭이띠 | 활기를 찾게 되는

- 운수: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주입니다. 집안이 화평하니 어려웠던 일은 모두 해결되고 부진하던 사업도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모든 일에 서두르지 말고 신중을 기한다면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며 자신의 뜻하는 바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가정문제에 전화위복의 기회가 찾아오고 애정문제에 회소식이 따르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6, 29일 길일. 25, 28일 주의.

닭띠 | 동업은 하지 말아야

- 운수: 능률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지며 스트레스로 인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지는 주입니다. ● 금전: 동업을 하면 실패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잃고 명예 또한 잃을 수 있습니다. ● 애정: 경솔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자신의 기분에 충실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5, 26일 길일. 27, 29일 주의.

개띠 | 지혜롭게 활용하도록

- 운수: 구체적으로 일이 실현될 수 있는 전망이 보이군요. 이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하도록 합니다. ● 금전: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회복이 되니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애정: 상대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상대와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3, 27일 길일. 24, 29일 주의.

돼지띠 | 기분 전환이 필요한

- 운수: 기분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끼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도록 하세요. ● 금전: 해결점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는 것이 도리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애정: 뿌연게 가려져 앞을 구분하지 못했던 시야가 환해지면서 바로 앞에 가까이 있었던 사랑의 짝을 발견하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4, 29일 길일. 25, 28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매사추세츠주 웰즐리 (Wellesley, Ma) 에서 매주 일요일 아침 부터 저녁까지 치매에 걸린 연로하신 아버지를 도와주실 유 경험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joint@sent.com 으로 문의해 주세요.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 choishhealthspa@gmail.com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미스터리 수사단' 카리나 "제 새로운 모습과 진짜 텐션 나왔죠"

(서울=연합뉴스) 오명연 기자 = "처음 해보는 예능이라서, 일상생활에서의 제 진짜 텐션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카리나)

'두뇌 예능의 대가'로 불리는 정종연 PD의 신작 '미스터리 수사단'에 출연하는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는 18일 서울마포구 한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처음에 저는 원래 겁이 없는 편이라고 말했었는데, 촬영을 시작하니 너무 겁을 먹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다"고 했다.

이날 6부작이 전부 공개되는 '미스터리 수사단'은 일반적인 부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특수한 사건만을 전담하는 수사단이 기묘한 일이 벌어진 현장에서 사건을 추적해가는 내용을 그린다.

카리나는 "어쨌든 촬영이고, 촬영이 끝나면 (설계된 세트장에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모두가 못 나갈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왕좌왕했다"며 "몰입한 저희의 모습을 보며 시청자분들도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소 추리소설이나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하는데 첫 예능을 추리 소설로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카리스마 있는 리더 이미지로 많이 비치는데, 이번에는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 막내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새로운 모습과 제 '진짜리 액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미스터리 수사단' 연출을 맡은 정 PD는 작품 특유의 세계관과 그에 어우러지는 다양한 미션들을 치밀하게 설계한다는 평을 받으며 탄탄한 마니아 팬층을 다져왔다. 그동안 '대탈출', '여고추리반', '데블스 플랜' 등을 선보였다.

정 PD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추리보다 어드벤처가 중심"이라며 "여러 방



송을 하다 보니까 공포물이 특히 반응이 좋았기에 이번에는 아예 그 분야로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연진은 성격이 밝은데 제가 설계한 이 프로그램의 분위기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며 "제가 웃음 많은 사람들의 웃음기를 어떻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지 기대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PD는 출연진을 몰입시키기 위해 사소한 소품까지 하나하나 신경 썼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품의 촉감, 무게감, 냄새, 심지어

어물의 맛까지 신경 써서 설계했다"며 "출연진이 저절로 긴장하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연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짚었다.

'미스터리 수사단'에는 카리나를 비롯해 코미디언 이용진, 이은지, 가수 준박, 이혜리, 배우 김도훈 등이 출연한다.

출연진은 단 6시간 이내에 생년월일이 모두 같은 실종자 3명을 수상한 폐공장 속에서 찾아내라는 미션을 받고, 잠수함 미다스호 승조원 6명의 생사를 확인하고 충격적인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도 한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BTS 지민, 내달 19일 새 앨범 '뮤즈'... "영감 원천 찾는 이야기"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지민이 다음 달 19일 새 앨범 '뮤즈'(MUSE)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18일 밝혔다.

빅히트뮤직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와 방탄소년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뮤즈'는 지난해 3월 발매된 지민의 첫 번째 솔로 앨범 '페이스'(FACE)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의 신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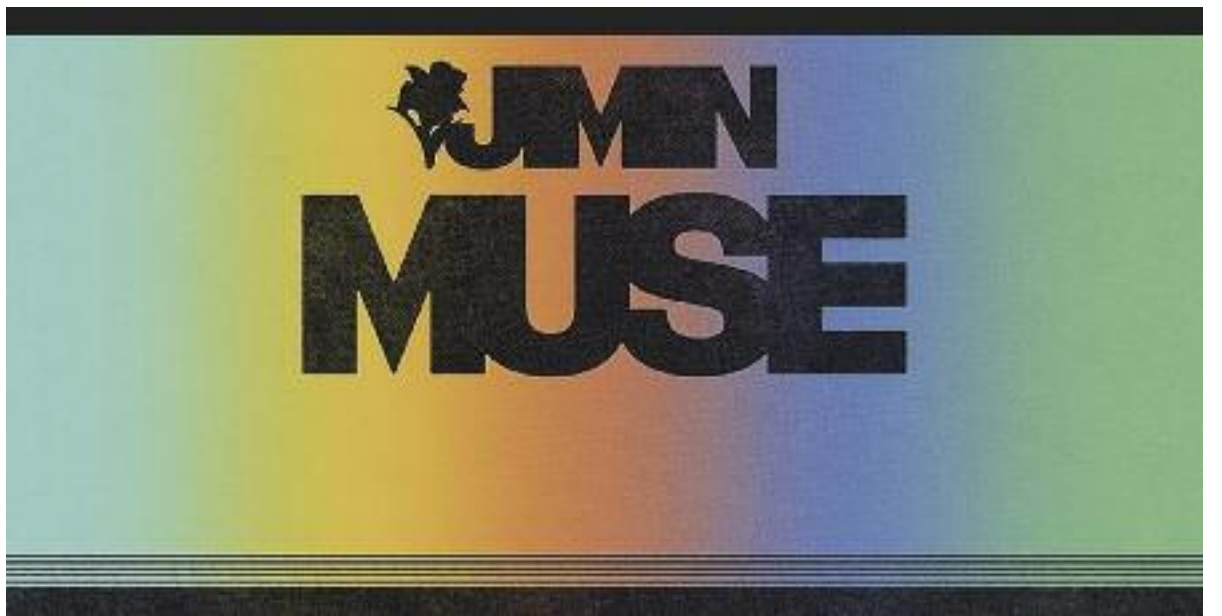
빅히트뮤직은 "새 앨범에는 영감의 원천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담겼다"며 "지난해 12월 공개된 팬송 '클로저 더 디스'(Closer Than This)를 포함해 총 7곡이 수록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신보를 통해 지민의 확장된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민은 지난해 12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군 복무 중이다. 그는 새 앨범 발매에 앞서 입대 전 미리 준비한 다양한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이다.

tsl@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나의 좌우명!

글을 읽다가 책 속의 저자가 '나의 좌우명'에 대해 묻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나에게 '나의 좌우명'이 있나? 아니면, 있었나? 특별히 좌우명이라고 이름 붙여놓지는 않았지만, 마음 속에 늘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 '순간이 영원이다'라고 생각하며 산다.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이고 그 어느 종교적 신앙적인 말 같지만, 이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여행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이유로 오래 전부터 어느 곳을 가든지 사진으로 자료를 담기 시작했다. 그 사진을 담기 위한 렌즈 속 세상에서 '순간'과 '찰나'를 배운 것이다.

자연을 좋아하는 내게 뉴잉글랜드 지방 보스턴의 사계절을 만나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한 일이다. 글쓰기를 좋아해 자료로 사진을 담기 시작하면서 작은 렌즈 속 세상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놀라웠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영원임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된 것도 사진이라고 생각한다. 사진은 내 인생의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다. "어찌 이리 아름답다운지요?"하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작은 피조물임을 고백하게 되었다.

그래서 '순간이 영원이다'라는 것을 좌우명으로 바꾸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18)

자연을 좋아하는 나는 산으로 들로 바다로 혼자 다니길 좋아한다. 세상 나이 60을 앞둔 나이이지만, 가끔은 친구들과의 수다가 흠뻑 젖기도 한다. 친구들과의 수다가 하루였다면, 사흘 정도 혼자 있는 시간(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다음 수다를 위해 '내 속의 에

너지'를 채워야 하는 이유이다. 무엇인가 생각할 것이 많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랑보다는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편이다. 가끔은 뒤뜰의 큰 나무를 매만지며 내 힘든 얘기를 들려주고, 듣곤 한다. 때로는 사람에게 한 말로 뒤가 뒹~해지는 때도 있지 않던가.

사람마다 생김새만큼이나 삶의 색깔과 모양과 소리가 다를 테지만, 서로의 믿음(신앙) 생활을 통해 소통하며 함께 나누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내게 없는 것을 나 아닌 다른 이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얘기 중에 나는 요즘 다른 사람이 맛난 음식(떡과 케 그 외 음식 등)을 만들며 배우려 하지 않는다니까. 맛나게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니까 라고 얘기하며 웃기도 한다. 그것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한다는 얘기일 것이다.

이렇듯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온종일 감사로 가득하다. 그것은 마음에서의 시작일 것이다. 좋은 일만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 버거운 일들도 기도하며 내 마음에 평정심을 얻기 때문이다. 화가 난다고 화내서 되는 일이 몇이나 있을까. 결국 내 속만 상하고 그날의 일들이 내 손 안에서 영망진창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금씩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처음은 어렵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평정심이 생긴다.

매일 연습과 훈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내 속 깊은 곳의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화하기 위해서는 반복 훈련의 루틴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다. '말의 힘'을 믿는 것이다.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은 생각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애쓰고, 칭찬에 후하고, 환한 웃음을 선사하다 보면 어느 날엔가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며 살려 한다.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의 좌우명이 되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원앙 한쌍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원앙을 선물로 받았다. 금슬이 좋으라는 기원이라했고, 우리집 작은 아이 결혼적에도 제 이모가 선물했다. 같은 종류의 원앙인데, 아이들이 알기나 할까. 제어머니가 설명을 곁들여 대충 이야기는 해준 모양이지만, 좋은 선물이라 여긴다.

나태주 시인이다. 완성이라 했다. 하긴 짝을 잃은 원앙이라면 보기에도 허전하다. 반쪽이 될테니 말이다. 집에 밥이 있어도 나는 아내 없으면 밥 안 먹는 사람내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아내를 서울 딸네 집에도 못 가는 사람우리는 이렇게 함께 살면서반편이 인간으

로 완성되고 말았다.(나태주, 완성)

원앙은 길조吉鳥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녀석들은 일부일처는 아닌데, 암컷이 수컷을 선택한다. 그래서 그런가. 원앙은 수놈이 훨씬 화려하다. 선택받기 위한 몸단장일 수도 있겠다.

새라면 최인훈의 소설 광장에도 나온다. 인도로 향하는 화물선을 따라오던 갈매기 두마리를 말한다. 작가는 한국에 두고온 두모녀를 상징한다 했다. 나는 그 갈매기 한쌍은 부부관계일꺼라 넘겨짚었다. 소설은 소설일테니 내 입맛대로 마음대로 해석한거다.

옛적 한국엔 장승도 서있었다. 마을을 지키다 했고, 부부 한쌍으로 나란했다. 장승들도 짝을 이루었으니, 부부금슬 역시 제법 이었을 터. 이제야 모두 구닥다리일진대, 아마 유물박물관에 전시되어 구경할 수는 있겠다. 이역시 목각인형으로 만들어져, 인사동에서 발견할 수있을지도 모른다.

오늘 졸문은 결혼식 주례사처럼 되어 버렸다. 결혼선물로는 원앙금침도 빠지지 않는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창세기 2장 24절)

한국뉴스에서 봤다. 서울 청계천에 원앙의 무리가 나타났단다. 사진으로 보기도 삼삼한데, 모두 웬일인가 했단다. 원앙은 동아

시아에 사는 텃새라 하고, 한국에선 천연기념물이란다. 이번인가, 길길한 징조이길 바란다. 나역시 오래전 결혼적에 목각

Shaping young minds is like discovering diamonds in the rough

1ST DIAMOND CUP GOLF CHAMPIONSHIP



DIAMOND CUP

GOLF

Monday, 1st. July 2024'
BLUE HILL COUNTRY CLUB
23 PECUNIT STREET
CANTON MA 02021

PRIZE

4 CLOSET TO THE PIN

**EACH WINNER RECIVES 1 CARAT
PREMIUM QUALITY CVD DIAMOND**

*1ST PLACE: \$2000/ TEAM
2ND PLACE: \$1500/ TEAM
3RD PLACE: \$1000/TEAM
LONGEST DRIVE: \$215
LUNCH , DINNER AND AFTER PARTY WITH DJ*

CHAMPIONSHIP TYPE

*TYPE: 4 PERSON SCRAMBLE
PARTICIPANT: 144
REQUIREMENT: 18+ MALE/
FEMALE GHIN NOT REQUIRED*



REGISTER NOW

US FUTURE LEADERSHIP FOUNDATION

www.usfutureleadership.org

Registration: formfacade.com/sm/tu4ab5NGY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위해 혈압 강화 관리 중요하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뇌졸중 예방을 위한 혈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휴람 의료 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신경과 박 광열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의 위험인자 중 조절 가능한 인자로 고혈압인 만큼 환자 개인의 상태를 꾸준히 살펴가며 꾸준한 혈압 관리가 중요합니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신경과 박광열 교수(대한뇌졸중학회 학술이사·사진)는 뇌졸중 질환의 심각성 및 뇌졸중 예방에서의 혈압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박광열 교수는 “1988년에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처음으로 혈압 수치가 140 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정의를 내렸다”며 “이처럼 혈압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불과 30~40년 전으로 고혈압의 심각성 및 이로 인한 뇌졸중의 위험성을 인식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광열 교수는 “환자의 혈압 수치는 무엇보다 환자 개인의 상태를 꾸준히 살펴가며 적정 수치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뇌졸중 일차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 관리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 박광열 교수는 “PROGRESS 연구를 통해 항고혈압제 투여 후 수축기 혈압을 9 mmHg을 낮춘 것으로 뇌졸중 발생 위험이 28% 감소했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이는 뇌졸중 예방에 있어 혈압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임상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광열 교수는 “2002년 란셋에서 발표한 LIFE 연구에서 오리지널 로사르탄 복용 환자는 고혈압 환자에서 심혈관계 원인의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정의된 1차 복합 평가 변수에 대한 위험을 13.0% 감소시켰으며, 사망 및 장애의 주요 원인인 치명적·비치명적 뇌졸중의 위험을 아테놀올에 비해 24.9%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박광열 교수는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정의된 1차 복합 평가 변수에 대한 위험을 13.0% 감소시킨 LIFE 연구 결과로 고혈압 환자 대상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첫번째로 혈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두번째로 어떤 약제를 쓰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기준이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혈압 감소 단독효과를 넘어 고혈압 환자에서 오리지널 로사르탄의 중요한 역할을 시사하는 한편 오리지널 로사르탄 복용군에서의 뇌혈관 보호 효과는 아테놀올 대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성인 일차성 고혈압 환자

를 대상으로 하는 NICE 가이드라인에서는 55세 미만의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ACEi(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혹은 ARB(안지오텐신 II수용체차단제)를 먼저 쓰고 이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CCB(칼슘차단제)를 병용하며, 55세 이상의 환자에게는 CCB를 먼저 처방하고 충분치 않은 경우 ACEi 또는 ARB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오리지널 로사르탄 제제, 코자정이 안지오텐신 II수용체차단제 중국 내 최초로 좌심실 비대와 있는 고혈압 환자에서의 뇌졸중 발생 위험의 감소에 대한 적응증을 승인받았다. 박광열 교수는 “안지오텐신 II수용체차단제 코자정이 좌심실 비대와 있는 고혈압 환자에서의 뇌졸중 발생 위험의 감소에 대한 적응증을 승인받은 만큼 의료진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처방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이번 적응증 승인을 통해 오리지널 로사르탄이 아테놀올에 비해서 뇌졸중 예방 위험을 감소하는 등의 추가적인 효과를 보여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고 말했다. 박광열 교수는 “뇌졸중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 및 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그 증세에 따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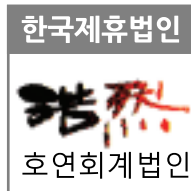
예방하는 것은 물론 고혈압을 비롯해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빠르게 치료받고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뇌졸중 예방위해 혈압강화 관리 중요하다.”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휴람 - 성형외과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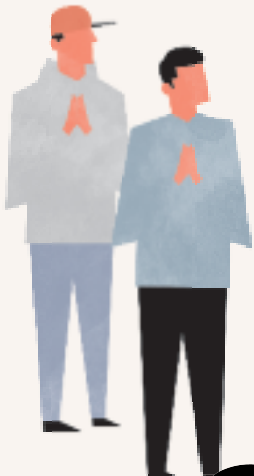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aram@haram.kr / www.huramkorea.com



TBO play



한국방송

어떻게 보세요?

지금보시는 한국방송 서비스 보다 저렴하게!

최근 1개월치 빌을 보내주시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전미주 합법 한국방송 서비스 Since 2009



티보 플레이로 보세요! ▼

문의전화

855-826-4636
855-TBO-INFO



한국전 참전 용사 묘비 국기 달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는 매사추세츠주 우드브룩 묘지(Woodbrook Cemetery)에서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국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4년 6월 22일 토요일 10:00 AM

장소 : Woodbrook Cemetery

100 Salem St, Woburn, MA 01801

문의사항 : 준비위원장 박찬모 213.364.0577

부위원장 서충욱 617.833.136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